

다문화가족의 고부갈등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인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공 은 숙

예수대학교 간호학부

(요약) 본 사례연구는 다문화가족의 고부간에 나타나는 일상적인 갈등을 묘사함과 동시에 그 작동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60대 시어머니를 집중적으로 면담·관찰하여 외국인 며느리와 갈등의 핵심 요인이 의사소통 어려움, 문화차이, 상호기대의 불일치임을 파악했다. 이를 한국인 고부갈등과 비교할 때 다문화가족의 고부갈등에서도 역할구조 및 생활구조형 갈등이 핵심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고부간 갈등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애정경쟁형 갈등이 별로 없었으며, 권력구조형 갈등은 한국고부관계처럼 겉이 아니라 배후에서 작동함을 파악했으며, 또 그 갈등은 한국고부간보다 더 심하고 일상적이었다. 그 이유는 의사소통 어려움, 문화차이, 상호기대 불일치가 일상적 관계로 작동하여 이를 해소할 기제가 없어 고부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악화요인 때문에 이들 고부관계에서 감정적 행동이나 회피가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심층 연구 사례를 축적시켜 이러한 갈등을 해소시킬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Key words: 고부갈등, 다문화가정, 여성노인, 외국인며느리]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60-71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68-1번지 예수대학교 간호학부 공은숙 교수 앞으로 하시길 바라며, 저자의 e-mail 주소는 eun@jesus.ac.kr이다.

서 론

국제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 국제결혼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0년에 3.7%에 불과하던 외국인과의 혼인 비율이 2007년에는 약 11%로 증가했고, 그 중에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 비율이 8.4%에 이르고 있다. 특히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국제 결혼률이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 결혼가정이 농어촌의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특히 남녀성비의 불균형, 이혼율, 재혼율이 증가하고 여성들의 농어촌 회피에 따라 농어촌의 초혼 및 재혼 남성들의 국내 결혼입지가 좁아지면서 국제결혼은 계속 증가할 추세를 보이고 있다(양순미, 2006).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정 증가는 특히 농촌지역 출산율을 증가시켜 저출산·고령화현상을 완화시키고, 노동시장 및 국가간 교류 영역에 이중 언어구사 및 다문화적 감수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제공하는 순기능도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적 갈등이나 부부갈등, 가족 간의 갈등, 이혼문제, 자녀교육문제, 건강문제, 경제적인 문제, 일자리문제 등 사회적 문제들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인 지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인 문제들의 실태나 양상들을 파악하기 위한 인권피해문제(이주여성인권센터, 2004; 양정화, 2005), 부부갈등(김오남, 2006; 윤형숙, 2005), 결혼만족도(김진희·박옥임, 2008; 정주연, 2008; 표현영, 2004; 한주연, 2002), 문화적응(박진영, 2009; 최운선, 2007)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관련된 정책들도 개발되고 있다. 한국인 부부의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 부부갈등의 주원인 중의 하나가 고부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서울시 가정상담소, 2000; 한국여성개발원, 2004), 외국인 여성 며느리와 한국인 시어머니 사이에서 나타나는 고부갈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자는 외국인 며느리와 한국인 시모 간에 고부갈등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노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노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되었으며, 한 개인을 대상으로 집중탐구하고 분석하여 노인의 심리적 지지를 위한 기본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외국인 이주여성을 며느리로 맞이하여 같이 사는 가족에서 일상적인 고부갈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국인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고, 이해하는지, 그리고 어려운 점들이 무엇인지 사례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및 대상자

본 연구는 국제결혼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생생한 경험에 주목하고, 고부갈등과 관련된 이러한 경험을 생생하게 기술하고, 이를 통해 가장 본질적인 고부갈등의 구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한 사례연구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주된 질문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고부갈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고부갈등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외국인 며느리와 같이 살면서 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 점은 무엇인지 등이었으며, 대상자와 심층면담을 통하여 이러한 일상적인 경험을 최대한 생생하게 기술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고, 한국어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60대 여성노인으로 30대 베트남여성을 큰며느리로 맞아 2년째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다문화가족의 여성노인 1인이다. 대상자는 체격이 아주 마르고(140cm, 35Kg 정도), 왜소한 외모였으나 걷는데 지장이 없고 활발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중퇴나 정신상태가 명료하고, 이해력과 수리 및 기억력의 기능이 빨랐다. 면담 시 말은 빨랐으나 면담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일상생활에서 재현되는 고부갈등의 경험 내용은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경험담을 말할 때 종종 분노의 감정이 표출되었으며, 목소리가 매우 높게 올라갔다가 다시 낮아지는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자기감정을 자제하고, 인내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자료수집 및 과정

대상자와의 직접 면담에 관한 자료는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연구자가 직접 내담자 집을 3회 방문하여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으로 얻었고, 수시로 전화통화로 이를 보충했다. 처음에는 복지관에서 다문화 가족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에게 연구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연구목적에 적합한 60대 여성노인을 소개받았다. 대상자와 전화로 방문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복지관 담당자와 함께 대상자 자택을 방문하여 자연스럽게 대상자와의 라포를 형성했다.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면담 및 모든 연구과정에 대해 구두 승낙을 받았다. 또한 대상자가 거부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거부표시를 하도록 설명했으며, 연구자와 대상자가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시에 연구자는 대상자가 피곤하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장소를 옮겨 환경을 환기시키고, 다과를 나누거나 산책, 식사를 하기도 했다. 대상자가 잘 몰입하도록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경청했으며, 동감을 표시하고, 대상자 경험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면담 내용은 녹음하기도 하고 녹음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면담 후 바로 상세하게 기록했다. 또한 면접 시 관찰된 대상자 행동도 노트에 상세하게 기록했다.

결 과

대상자가 베트남 출신 외국인 며느리와 같이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고부갈등에 대한 면담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대상자는 며느리가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낀다. 하루 종일 며느리와 함께 있으면서 살림살이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

다보니 이런 저런 말을 계속 며느리에게 하지만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 대상자가 지시를 하면 대답은 곧잘 하지만 며느리의 즉각적인 행동반응이 없고, 몇 번을 반복해야 겨우 행동이 나타나니 이해한다고 믿을 수가 없고, 정신적으로 힘이 들고,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느낀다.

“내가 폭폭 해서 미치겠어요. 무슨 말이 통해야지요. 내가 집안일을 하나부터 다 가르쳐요. 같이 살 사람이니까. 그런데 말을 하면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가 봐요. 몇 번을 반복해서 가르쳐도 몰라요. 어떤 때는 며느리가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집안일을 하려면 내말을 잘 이해해야 하잖아요?” “한 번은 시장에 같이 가자고 내려오라고 하니깐 고개를 끄덕이기에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요. 한참 후에 다시 집에 올라와 보니까 전화통 붙잡고, 히히덕거리며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열불이 나요. 빨리 장을 봐다 저녁식사 준비를 해야 하니깐 마음이 바빠 죽겠는데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한번 두 번도 아니고 허구헌날 매일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니... 참. 내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내가 마음고생이 심해요. 정말 미칠 지경인 때가 많아요.”

또한 대상자는 자신이 며느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함을 느끼기도 한다. 며느리가 때로는 대상자에게 굉장히 빠르게 무슨 말을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해 당혹감을 느낀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자기네 말로 하면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말을 배우질 않았으니 당연하죠. 그런데도 지가 답답하면 자기네 말이 나오나 봐요. 말도 얼마나 빨리 하는지 흉내도 못내요. 한국말로 해보라고 소리 지르면 울면서 뛰쳐나가요.”

며느리가 한국말이 서투르지만 단어 몇 개라도 한국말을 사용하면 대상자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신속하게 알 수 있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심리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크게 느껴진다.

“며느리에게 아무리 한국말을 가르쳐도 머리에 잘 들어가지 않은가 봐요.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단어나 문장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님이 오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는 잘 해요. 처음에는 웃기만 하고 아무 말도 못하더니 지금은 훨씬 나아진 거예요.” “며느리가 우리말로 한 마디 하면 나는 금방 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한번은 며느리가 나한테 와서는 훌쩍 훌쩍 뛰면서 돈, 돈, 돈, 엄마, 엄마, 베트남 엄마, 삼십육만, 엄마 돈 다...를 반복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생각해보니 내가 자기엄마한테 보내주기로 한 돈을 부쳐주지 않고 내가 다 써버렸다고 항의하는 거예요. 알아듣거나 못 알아듣거나 내가 신속하게 며느리에게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고, 통장을 보여주면서 다음 달에 보내준다고 했어요. 쉽게 조용히 해결했지요. 그런데 온몸에서 땀이 나요. 그럴 때는 며느리가 정말 애기 같잖아요. 내가 꼭 서너 살 먹은 애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년에 무슨 고생인가 하고 내 한탄도 나오고, 한숨도 나오고 해요. 살기가 폭폭하고 힘들죠.”

문화적 차이

대상자는 며느리의 관습을 잘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경험한다. 며느리 또한 아직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자신의 관습을 그대로 나타낸다. 대상자는 며느리가 다른 행동을 나타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상자가 야단을 치기도 하지만 많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몹시 고통으로 느껴진다.

“아휴... 말도 못해요. 며느리 행동을 말하자면 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참아야지요. 내 아들이 못나서 남의 나라 여자를 데려왔고, 내가 복이 없어 그런 며느리를 봤으니 어떡해요. 꼭꼭 참느라 내가 [몸이] 이렇게 말라요.” “처음에는 그래도 나아지겠지 하고 꼭 참았는데 요즈음에는 내가 참기가 힘들어요. 막 화가 나데요. 화를 참지 못해서 큰소리로 막 질러요. 그러니까 속이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일 소리 지르는 것도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냥 미칠 것 같아요.” “이런 일도 있어요. 며느리가 짧은 속 팬티만 입고 거실을 돌아다녀요.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생활을 하지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야단을 치지요. 그런데 헤헤헤 웃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무리 주의를 줘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남편이 뭐가 돼요? 내가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쳐도 소용이 없어요. 속상하죠.” “또 이런 일도 자주 일어나요. 며느리가 내 아들을 오빠라고 하는데 아들이 퇴근하고 오면 같이 따라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않아요. 한번은 제 방에서 고성을 끼악끼악 지르면서 시끄럽게 하길래 참다가 불러내 야단을 치면서 나도 모르게

며느리 손을 탁 쳤나 봐요. 갑작스럽게 화를 내면서 ‘엄마 나빠 엄마 나빠, 때렸어, 아파, 때렸어, 아파’를 반복하면서 나를 찌러보면서 화를 내요. 내가 엄마한테 그러면 못쓴다고 하니까 입이 앞으로 뚱 나와 있어요. 아들 밥을 차려 주라고 하니까 가만히 방 앞에만 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가라고 소리를 쳤더니 울면서 맨발로 집을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온 집안이 쑥대밭이 돼요. 이제는 지쳐요. 내가 신경쇠약증에 걸릴 지경이지요.”

기대치의 불일치

대상자는 며느리가 외국인이지만 한국인 며느리처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가 행동하는 것이 너무 자신의 기대치와는 거리가 멀다. 외국인 며느리 또한 한국남성과 결혼하면서 큰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기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지를 시어머니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나 며느리 모두 현실에서 기대치를 만족시키기가 어렵다.

“지난번에는 둘이 텔레비전을 보다 싸웠어요. 며느리는 외국인 나오는 채널을 본다고 하고, 아들은 한국 방송을 본다고 하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러다 아들이 며느리 무릎을 꼬집었나 봐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TV 조절기를 아들한테 그대로 던져 아들 눈가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며느리가 아들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내가 화를 내면서 남편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니까 나한테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정말 남편에 대한 예절도 없고.., 어른들에 대한 예절도 없고요. 며느리다운 면이 하나도 없어요. 이쁜 짓을 해야 예쁘지, 갓난 애기 같아서 내가 폭폭 해요.” “며느리가 한국말도 빨리 배우고, 돈도 벌고 하면 좋을 텐데. 미장원에 취직을 시켜줘도 피곤하고 힘들다고 한 달도 안돼서 그만 두고, 청소용역을 하라고 해도 못한다고 하고... 집안에서 편히 자고 먹고만 해요. 내 속이 썩어나요. 나는 이런 몸으로 뭐라도 하려고 발버둥치는데 젊은 지가 도와야지 안 그래요? 말도 못하니 혼자 보내기도 어렵고. 내가 따라다니는 것도 힘든데, 지가 더 힘들다고 일을 안 하려고 하니... 아들이 혼자 벌어서 언제 집사고 해요? 아들이 40이 훌쩍 넘었는데 아이도 있어야 할 텐데 며느리는 아들에게 돈만 달라고 해요. 정말 내가 걱정이 많아요. 내속이 까맣게 타고 있어요. 누가 이 속을 알아요?”

논 의

우리 문화권에서의 고부갈등은 예로부터 심하게 존속해왔으며, 이는 부부갈등의 주요원인이자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다. 고부갈등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혜자, 2003).

첫째는 가사처리권이나 경제권 등 가정관리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하는 권력구조형 갈등이다. 이 경우의 갈등은 전통적으로 시모에게 복종해야 하는 며느리가 복종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고정자, 1989). 둘째는 며느리와 시모의 역할에 대한 상호기대와 수행의 불일치로 파생되는 역할구조적 갈등이다. 이는 주로 시부모 부양에 관한 전통적인 역할을 며느리가 경시할 때 빚어진다(박현옥, 1989). 셋째는 모자사이의 관계가 특별해서 파생된 갈등으로 시모가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긴 것으로 착각하거나 며느리가 남편을 시모에게 빼앗긴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서 서로 공격 및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애정구조형이다(고정자·김갑숙, 1993). 특히 시모의 며느리에 대한 간섭과 아들에 대한 애정독점에 대한 지나친 요구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경아, 1987). 넷째는 생활환경의 차이나 세대차이, 그리고 성격차이 등 서로 살아온 생활의 배경이 달라서 초래되는 생활구조형 갈등이다. 이혜자(2003)에 의하면, 상기의 네 가지 고부갈등 중에서도 가장 빈도가 높은 경우는 역할구조형이고, 그리고 애정구조형, 생활구조형, 권력구조형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사례연구에서 60대 여성노인이 외국인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겪는 고부간 갈등 요인은 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 관습이나 문화 차이로 인한 상호이해 부족, 그리고 각자가 지닌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 차이 등이었다. 곧 외국인 며느리와 한국인 시모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경험은 한국인 고부 사이의 갈등 양상과 유사한 면도 있지만, 이들 고부 사이에는 역할구조형이 가장 핵심이 되는 등 수준이 다를 수 있다. 우선 가사 관리권을 자신이 행사해야 한다고 믿는 시어머니는 외국인 며느리에게 여러 측면에서 한국인 며느리처럼 역할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각종 역할 수행이나 태

도, 예절을 요구하지만, 며느리가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를 주지·훈육시키는 과정에서 며느리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를 간섭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맥락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권력구조에 대해 반기를 들거나 복종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고 싶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어머니에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곧 권력을 매개로 한 지배와 복종의 측면이 아니라 서로의 기대치가 다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에게 어떻게 만족시켜주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 고부의 오해와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상호의사소통을 통해 시어머니나 며느리의 가사 관리권에 대한 상호이해나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언어소통이 불가능하다보니 의사소통을 통한 이해가 아니라 고함을 지르는 등의 감정적 대응이나 폭행 또는 현장에서의 도피 등만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부갈등이 언어문제로 인해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 사례를 성장배경, 가치관, 성격이 달라서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나타나는 한국인 고부관계에서의 생활구조형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곧 개인적인 성장환경이나 가치관보다도 더 확연한 국가 사이의 문화차이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나 생활양식, 관습 등이 전반적으로 여러 상황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게 하는 등 서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본 사례의 고부갈등은 권력구조형이나 애정구조형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시어머니의 압도적 권력 소유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어나 문화가 낯선 며느리기에 대한 도전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시어머니는 남편, 아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목인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들이 어머니가 지나치다든가 또는 어머니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분가를 하겠다는 등의 마찰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사례의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며느리와의 애정경쟁을 벌이지 않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애정을 빼앗겼다는 인식보다도 며느리가 한국 문화와 언어를 잘 배워서 시부모와 남편에 대한 봉사를 잘 하고 자식도 낳고 잘 사는 전통적인 한국 며느리로 만들어보자는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 고부관계에서 애정구조형 갈등이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본 사례연구는 외국인 이주여성을 며느리로 맞아 함께 사는 다문화가족의 고부갈등문제에 어떻게 개입하여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60대 여성노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고부갈등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 고부갈등은 역할구조 및 생활구조형이 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그 갈등은 언어문제에 의한 의사소통 어려움, 문화적 차이, 그리고 기대치의 불일치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연구자가 베트남어를 구사할 수 없어서 며느리 입장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없었다. 이로 인하여 갈등이나 기대불일치에 대한 상호작용의 과정을 살펴볼 수 못했는데, 다문화가정의 고부갈등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며느리를 상대로 모국어로 심층적인 면담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족 내의 고부갈등, 그 중에서도 특히 시모인 여성노인의 고통 이해에 도움을 주며, 그러한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한 위기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고정자 (1989). *한국 도시 주부의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정자·김갑숙 (1993). 고부관계 연구에 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 235-247.
- 김오남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연구. *가족과 문화*, 18 (3), 63-106.
- 김진희·박옥임 (2008).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 비교. *농촌사회*, 18, 213-259.
- 박진영 (2009).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어려움과 교육 참여 경험. *평생교육학 연구*, 15, 77-104.
- 박현옥 (1989). *고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가족부 (2008). *결혼이민자 현황*.
- 서울시 가정상담소 (2000). *사랑의 전화 상담분석*.
- 송경아 (1987). *고부간의 갈등원인 및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 (2006). 농촌가족의 변화: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적응 및 생활 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중심. *농촌사회*, 16 (2), 151-180.
- 양정화 (2005). *이주여성의 차별과 폭력경험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형숙 (2005).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 (2), 299-339.
- 이주여성인권센터 (2004). *국내거주 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과제*.
- 이혜자 (2003). 시모의 고부갈등 유형화와 관련변인 연구. *노인복지연구*, 봄호, 31-59.
- 정주연 (2008). 베트남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사회복지 학생연구논총*, 1, 228-262.
- 최운선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 141-181.
- 표현영 (2004). *국제결혼가정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서남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여성개발원 (2004). *지역여성통계*.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한주연 (2002). *한·일 국제결혼 가정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 Case Study on the Conflict between a Korean Mother-in-law
and a Vietnamese Daughter-in-law**

Eun Suk Kong
Department of Nursing
Jesus University
Jeonju, Korea 560-71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describe the conflict between a Korean mother-in-law and a Vietnamese daughter-in-law in a multicultural family. I described the daily living experience of the conflict in detail following main deteriorating causes of the conflict: the difficulty of communication, cultural difference, and the difference of mutual expectation. From analyzing the case, the conflict based on the difference of mutual expectation and on the difference of value and character are the major sources of the conflict. These conflict patterns are very similar to Korean cases, but the conflict based on affectional competition was not important. The major findings of this case study would be that emotional acts, shouting, and avoidance were very often used in daily interactions from the conflicts.

(논문접수일: 2009년 10월 9일)
(수정논문접수일: 2009년 11월 9일)
(논문게재승인일: 2009년 11월 30일)